

<지뢰찾기 시나리오>

곽철용 (31세, 게임을 좋아하는 직장인)

4년차 직장인 철용은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을 하고 퇴근 하는 길이다. 퇴근 후 컴퓨터 게임을 통해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철용은 최근에 모니터가 고장이 나 게임을 할 수 없어 퇴근을 해도 기쁘지가 않다. 철용은 새 모니터가 배달이 올 동안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중 마트에서 오프라인 지뢰찾기라는 게임기가 있어 사오게 된다.

철용은 집으로 돌아와 게임기 전원을 켜보았다. 설명서에는 여러가지 설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철용은 빨리 게임을 하고 싶어 기본적인 설정으로 바로 게임을 시작했다. 철용은 왕년에 지뢰찾기를 좀 해보았던 경험으로 쉽게 게임을 진행해나가지만 결국 찍어 맞춰서 지뢰가 없는 칸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생겨버렸다. 아직 예전의 감이 돌아오지 않은 철용은 지뢰가 있는 칸을 골라버렸고 아쉬워하며 다시 게임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게임을 클리어하고자 마음먹은 철용은 천천히 신중하게 지뢰를 찾아나갔다. 하지만 이번에도 지뢰가 없는 칸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버렸고, 철용은 한참을 고민했다. 고민 끝에 칸을 선택한 철용은 지뢰가 없는 칸인 것을 알고 기뻐했다. 하지만 그 때 철용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자친구의 지금 만나자는 전화였다. 조금만 더 하면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었지만 순정이란 게 있는 철용은 바로 여자친구에게 가야해 게임을 꺼야 했다. "너 다음에 한판 더 해." 철용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마포대교로 향했다.

철용은 빨리 게임을 하고 싶어 기본적인 설정으로 바로 게임을 시작

-> 간단하고 쉽게 게임을 시작하고 싶어하는 사용자

지뢰가 없는 칸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버렸고

-> 실력과 상관없이 오직 운으로만 게임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의 필요성

조금만 더 하면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었지만 순정이란 게 있는 철용은 바로 여자친구에게 가야해 게임을 꺼야 했다.

-> 게임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진행하던 게임을 다음에 이어서 할 수 있는 기능